선희궁 원당 아미타불 부처님 조성불사안내

속리산 법주사에서는 선망조상님과 인연영가님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선희궁 원당에 만년위패를 봉안하고 그곳에 아미타불 부처님을 새롭게 모시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부처님께서는 서방정토의 극락세계에 머무르시면서 법을 설하여
모든 중생들을 성불시키시는 불보살님이십니다.
아미타불은 무량한 수명을 가지고 한없는 광명을 지니시는 부처님으로
뭇 생명 있는 자들은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통해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위없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주사의 아미타불 부처님 조성불사는
불자님들께 참으로 뜻깊은 불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미타불 부처님 조성불사에 동참하시어 그 인연의 공덕으로 현세의 무량복덕을
누리시고 내세에서도 극락왕생하시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모든 인연과 중생들이 아미타불 부처님과의 인연으로 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선희궁원당 아미타불 조성불사 : 한가족 **50**만원
불단조성불사 : 한가족 **30**만원

- **선희궁원당 불사계좌안내** : 농협 **351-1333-5675-83** (법주사)
- **문의 및 안내** : 원주실 (043)543-4755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www.beopjusa.org 2024 | 9

부처님 말씀 일곱가지 법 / **이달의 법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주지스님 법문** 누운 풀처럼 / **기획특집** 추석의 유래와 의미 / **감로의 글** 출가와 구도의 여정 / **수행여화** 행복 수신지역 / **법주사 행사일정** / **법주사 소식** / **미륵재일기도** / **초하루 신중기도** / **광명진언기도** / **지장재일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 **생일불공** / **추석합동차례 안내** / **선희궁 원당 아미타불 부처님 조성불사안내**



일곱가지 법

마갈타국의 국왕인 아사세 왕이 월지국越祇國을 쳐들어가려고
대신大臣인 우사를 시켜 부처님께 교칙敎勅을 청하였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월지국에는 그 나라 국민들이 일곱 가지의 법칙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이 법을 가지고 나면 승리한다 하시고 일곱 가지 법을 말씀하셨다.
일곱 가지의 법이란 자주 모여서 서로 정사를 의논할 것이며,
임금과 신하가 서로 화합하여 충성하고 양심 있는 인물을 사용할 것이며,
위로 법을 받들고 아래로 백성을 잘 거느려 법을 어기지 말 것이며,
남녀를 잘 분별하고 어른과 아이들을 구별하여 질서를 바로 잡을 것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을 섬길 것이며, 천심天心을 받들고 사직社稷을 숭배하여,
도덕을 존경하고 사문沙門을 공양할 것이니라.
이 일곱 가지의 법을 가지면 위태로움이 없고 승리한다고 말씀하셨다.
우사대신雨舍大臣은 이 교칙을 받아 부처님께 여쭈어 사뢰되 월지국 국민은
이러한 법도 가지지 않고도 싸웠거늘 하물며, 이러한 일곱 가지의 법을 가지고
승리하지 아니하리오오 하고, 부처님께 사례하고 돌아갔다.
도를 닦아 고요한 곳에 아름다운 낙落을 받는 것은
법을 듣고 보는 것으로 가장 즐거운 낙을 삼고 세상 사람들은 번거롭고
요란스러운 것으로서 낙을 삼는 것이다.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낙樂과 세상에 애욕을 여의는 낙과
모든 은혜를 벗어나는 낙과 능히 아만我慢을 꺾는 낙이
모든 낙 가운데 제일 큰 낙이 되느니라.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4 9 | 통권 392호



2 **부처님 말씀** 일곱가지 법
4 **이달의 법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
6 **주지스님 법문** 누운 풀처럼 정덕 스님
8 **기획특집** 추석의 유래와 의미 편집부
10 **감로의 글** 출가出家와 구도求道의 여정 고광 스님
15 **수행여화** 행복 수신지역 현진 스님
18 **법주사 행사일정**
19 **법주사 소식**
20 **미륵재일기도 / 초하루 신중기도 /광명진언기도**
21 **지장재일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22 **생일불공**
23 **추석합동차례 안내**
24 **선희궁 원당 아미타불 부처님 조성불사안내**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68(단기4357)년 9월호 통권 392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충북 라 01005)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덕 / 주간 · 현진 / 편집장 · 남전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법주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지명대종사 법주사 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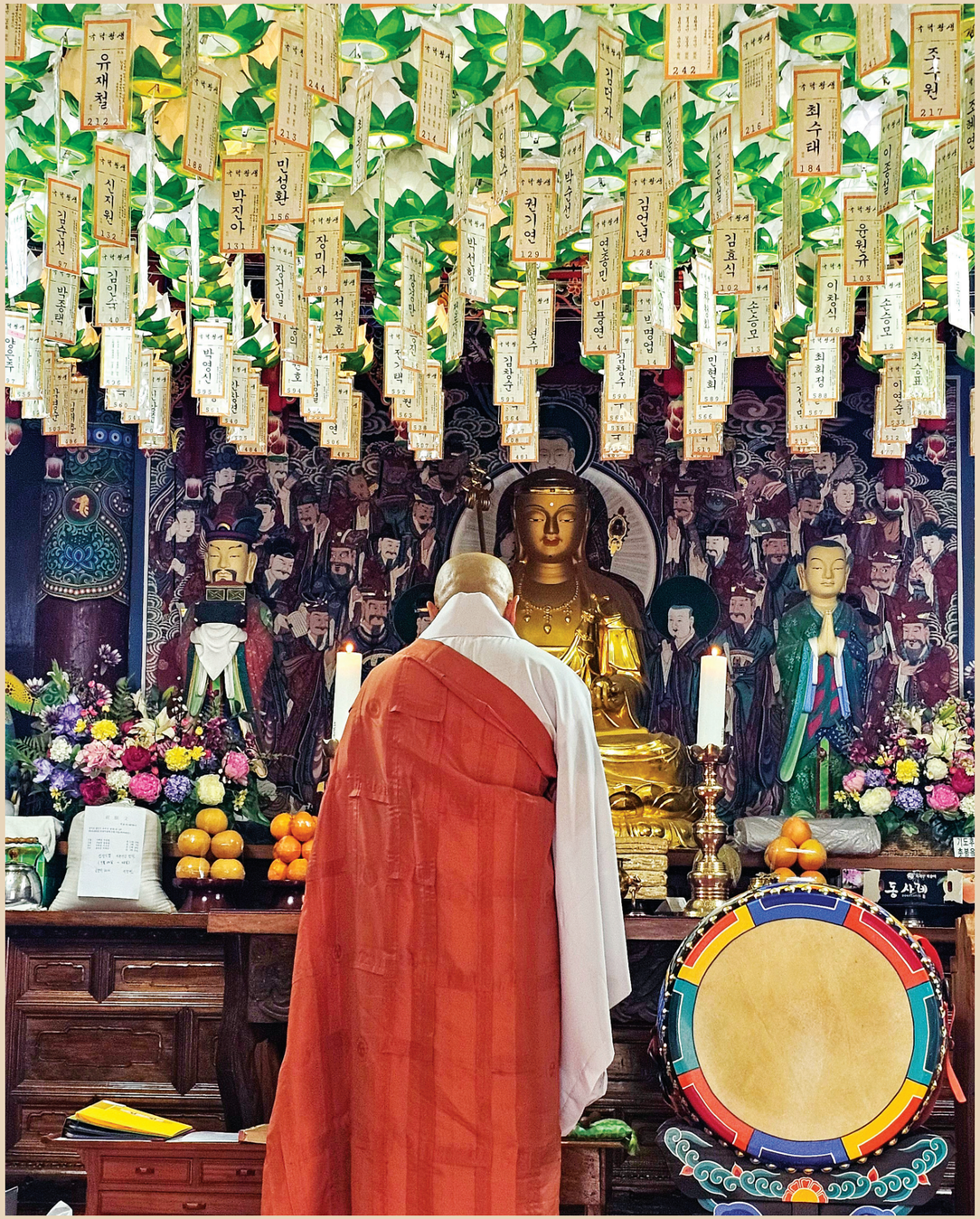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게송은 불자가 아니어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았을 만큼
아주 유명한《숫타니파타》의 한 게송입니다.
《숫타니파타》는 부처님 당시 승가의 가장 초기 단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가장 오래된 언어적 형태를 띠는 경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부파에도 소속되지 않은 부처님의 원형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고,
누구나 알기 쉽게 불교의 진수를 설하고 있어 당시 수행자들에게는
삶의 중요한 지침서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은 인생의 커다란 변곡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매우 힘든 시기일 수도 있고, 매우 두렵고 다급한 시기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복잡하거나 혼란한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젊은 시절 마음이 번잡해질 때는 이 게송을 외우며
스스로 마음을 굳게 먹고 정진의 끈을 놓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좋지 않았던 기억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걱정, 심지어 현재에 누리고 있는
즐거움조차도 사실은 영원하지 않으며,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상을 관하는 지혜로 비추어 보면, 이들은 모두 관념의 산물로서 실체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온갖 경계를 대함에 항상 주의를 기울일지언정, 분별심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스스로 속박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선가귀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행의 요체는 다만 범부의 생각을 떨어지게 함이지 달리 성인의 알음알이는 없느니라.
중생심을 버릴 필요 없이, 다만 자성을 오염시키지 말라."
(修行之要는 但盡凡情이요 別無聖解니라 不用捨眾生心하고 但莫染汚自性하라)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사는 불자가 됩시다.



●●주지스님 법문

누운 풀처럼

정덕 스님 법주사 주지

달라이라마는 매일 아침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나 자신을 가장 미천한 사람으로 여기고
상대방을 최고의 존재로 여기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올리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일이 제일 어려운 수행일 것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등장하는 상불경常不輕보살은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부처가 되실 분이니 존경합니다.'라며 예의를 갖추었다 합니다.
결국 타인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일이 수행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에서는 어디서나 하심下心을 강조하며
스스로 아상과 삼독을 다스리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 수행보다 더 훌륭한 하심 공부는 없습니다.
신체의 가장 위에 있는 머리를 가장 낮은 땅까지 낮추는 일,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항상 자신을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높이 있는 것은 금방 떨어지기 쉬워도 낮은 것은 떨어질 위험이 없습니다.
부인을 종처럼 부리면 자신도 종의 남편이 되지만,
여왕처럼 높여주면 자신도 임금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운 풀처럼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저도 오늘은 달라이라마의 기도문을 외우고 속리산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추석의 유래와 의미

편집부



유래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다른 말로 한가위라고 부릅니다.
한은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라는 의미를 가진 옛말입니다.
즉 8월 15일인 한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뜻입니다.
“가위”라는 말은 신라 때 길쌈놀이인 “가배”에서 유래한 것으로
“길쌈”이란 실을 짜는 일을 말합니다. 신라 유리왕 때, 한가위 한 달 전에 베 짜는 여자들이
궁궐에서 두 편으로 나누어 베를 짭니다. 한 달 뒤인 한가윗날 베를 짠 양을 가지고
승부를 가린 후 진 편이 이긴 편에게 음식과 춤으로 대접했습니다.
이 같이 길쌈놀이가 “가배”입니다. 훗날 “가배”는 “가위”라는 말로 변하였습니다.
추석은 설, 단오와 함께 우리 민족의 3대 명절이라고 합니다. 추석이 되면 한더위도 물러가고
서늘한 가을철로 접어듭니다. 또한, 넓은 들판에 오곡이 무르익어
황금빛으로 물들어 온갖 과일이 풍성합니다. 추석은 1년 중 가장 풍요로움이 넘치는 날입니다.

의미

민족의 명절 추석은 우리의 고유 명절로 1년 중 가장 풍요롭고 즐거운 날입니다.
추석은 풍성한 오곡백과의 추수에 감사하여 조상의 얼을 기리는
뜻깊은 민족 전통의 으뜸 명절입니다.

풍속

한가위는 고대사회에서부터 있었던 만월의 명절입니다.
달의 고마움에 감사하고 달을 위했으며 떡을 해도 달떡을 했습니다.
한족들은 만월을 상징하는 월병을 만들었으나 우리는 송편이라 해서 반월형의 떡을 했습니다.
달에게 소원을 비는 민간신앙을 가지며, 반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므로
발전의 상징으로 생각해 반달형 떡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추석을 전후해서 잘 익은 벼, 수주, 조 등 잘 익은 곡식의 이삭을 한 줌 베어다가 묶어
기둥이나 대문 위에 걸어 두기도 했습니다. 이는 풍년에 감사하고 또 다음 해의
풍작을 기원하는 행위였습니다. 호남지방에서는 그 해 난 올벼를 조상에게
천신 하는 제를 지내는데, 이를 “올벼심미”라고 합니다.
추석에는 풍작의 기쁨을 누리며 놀이를 즐겼습니다.
농부들은 소놀이, 거북이놀이, 농악, 씨름 등을 부녀자들은 강강술래,
학동들은 원놀이, 가마싸움 등 모든 이가 놀이를 즐기며 만월과 풍작을 흥겹게 즐겼습니다.
그리고 한가위는 떨어져 사는 친척들이 모여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산소를 찾아 성묘를 하며
조상의 은혜를 생각하고 보답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음식

〈동국세시기〉에는 송편, 시루떡, 인절미, 밤단지를 추석의 시절음식으로 꼽았는데
송편은 대표적인 추석음식입니다. 전하는 말로는 송편을 예쁘게 잘 빚어야
시집을 잘 간다고 하여, 여자들은 예쁜 손 모양을 내며 반월형의 송편에 꿈, 밤, 깨, 콩 등을
넣어 맛있게 쪄냈으며, 이때 솔잎을 깔아 맛으로만 먹은 것이 아니고 후각적 시각적인 멋도
즐겼죠. 추석전날 송편을 잘 빚어 놓고 추석 차례의 여러 제수를 장만합니다.
추석은 풍요한 수확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일 년 내 지은 곡식으로 정성껏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지은 농사가 풍년을 맞게 된 기쁨과 감사를 나누면서
순수한 인정을 나누는 날입니다.

출가出家와 구도求道의 여정

고광 스님 법주사 노전

이 시대를 함께하는 승려로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스님은 생긴 것도 멀쩡한데 왜 출가하셨어요?"라는 말이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언제나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 한 주제로 대답해 주곤 했다.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는 딱히 말하지 않아도 금방 유추해 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18살에 출가했기에 그렇게 로맨틱한 연애 경험이나 세속적인 어떤 어려움도 없었다. 그야말로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남중男中과 남고男高를 다녔고 오로지 관심사는 서예밖에 없었기에 더욱이 그러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종교에 관심이 생기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개종과 할머니의 죽음이었다. 원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즈음엔 불교로 개종한 상태였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도 다녔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돌연 불교로 개종하셨고, 마치 교회에 다니듯이 절에도 지극정성으로 다니셨다. 나는 그 사실이 좀 의아했지만, 어머니께서 다니는 대로 나도 별생각 없이 따라다녔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국민윤리 시간에 각 종교의 교리를 대강 배우게 되었다. 그때 팔정도八正道를 배웠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팔정도'라는 게 그저 도덕 교과서에 흔하게 말하는 '바르게 살라'는 말을 여덟 가지로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견正見, 정사正思,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이란 팔정도에 '바르게 하라'는 '정正' 자字가 붙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도덕률道德律 같은 가르침이 싯다르타 태자가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괴로움에서 완전하게 해탈解脫하는 방법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절에서 받아온 '불교성전佛敎聖典'이라는 책을 열심히 탐독했지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불교학생회'라는 단체가 있다고 해서 누가 권유하지 않았음에도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스스로 찾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불교학생회를 열심히 다녔건만, 궁금증은 끝내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한 10년만 전문적으로 공부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그게 실질적인 출가出家의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출가한 승려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중에 '발심출가發心出家와 생계출가生計出家'라는 말을 한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출가한 사람을 '생계출가生計出家'라고 하고 불법에 의심이 생겨 진리를 알려고 출가한 것을 '발심출가發心出家'라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물론 안 믿겠지만, 나는 그야말로 자칭 발심출가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출가 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입학해 전문적으로 공부했지만,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뒤에 100일 기도도 여러 차례 해보았고 선방禪房에도 다녀보았으나 역시 해결되진 않았다. 그래서 뒤늦게 다시 동국대학교 선학 대학원에 다시 들어가서 공부도 해보았고, 급기야는 미얀마로 건너가서 또, 다시 출가도 하게 되었다. 여담이지만, 그래서 한국과 미얀마에 이중 승적을 가진 스파이 같은 승려가 되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 미얀마 승려들은 한국 승려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한국 승려들은 미얀마 승려라면서 우리와 결이 다르다고 따가운 눈총을 받기 일쑤였다.

물론 미얀마에서 다시 출가하게 된 것도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론이 전개되었기 때문이었고, 또 그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대로만 하면 뭔가 분명하게 해결될 듯한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나름 제 딴에는 열심히 정진해 보았으나 역시 속 시원한 정답은 아니었다. 물론, 수행하면서 얻어진 수행체험이 없진 않았지만, 그것이 끊임없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나의 탐진치貪瞋癡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수행에 안주할 수 없었다.

처음 출가할 땐 10년만 해보려고 했던 중노릇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30년이 훌쩍 지나 버렸다. 그래서 나의 출가할 때 숙제를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마련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도덕률처럼 느껴져서 무시했던 팔정도八正道였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가 유일한 해탈의 길이라고 말했거늘, 어째서 나는 '팔정도는 외면한 채 엉뚱한 짓을 하면서 막연히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지를 꼼꼼히 되돌아보게 되었다.

내 출가出家와 수행修行을 되돌아보니, 누군가의 말만 열심히 쫓아가기 바쁜 나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 한 것이다. 그 이유는 누군가가 정리해 놓은 불교 서적을 읽었을 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經典을 제대로 읽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참고하지 않고 부처님의 경전에 나온 내용만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에 알게 된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문장을 꼼꼼히 분석하면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발견한 사실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부처님의 경전을 읽어보았더니 그토록 이해되지 않던 경전이 너무나 잘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필사처럼 오랜 세월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반드시 알려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법주 회보에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글 쓰는 것'과 아예 담쌓고 살았던 잡승雜僧 주제에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너저분한 글솜씨로 투고投稿하게 되었다.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어떤 '이름 모를 수행자의 부처님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쯤으로 생각하고 진지하게 읽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장主張과 진리眞理에 대하여

독자 여러분께 첫 번째 말씀드릴 주제는 '주장'과 '진리'의 문제입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 '주장과 진리는 무엇이 다르지?'라고 생각한 사람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대체로 '그게 그거 아니야?'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경전에서 진리와 주장을 명확히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문제의 해결점이기도 합니다.

주장은 '사실인지를 끝내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증명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장은 언제나 반대되는 견해가 등장하게 되어 언제나 논쟁을 초래하게 되며 결론도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선설과 성악설', '이원론과 일원론', '진화론進化論과 창조론創造論', '우연론偶然論과 숙명론宿命論' 등등의 문제들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상思想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주장이 아니고 진리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진리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 불가결한 요건은 근거가 명확하여 언제든지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반드시 체크하신 내용은 유기有記와 무기(無記 Avyākata : 설명되지 않은, 설명할 수 없는, 답하지 못하는, 결정하지 못하는)의 문제입니다. 유기와 무기는 '설명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의 문제로 한문으로는 '기록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번역하거나, 양구(良久:매우 오래된; 진부한 이야기), 또는 성묵(聖默: Ariya tuṇhībhāva; 거룩한 침묵, 대답할 가치가 없어서 말하지 않음)으로도 번역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기준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과한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눈, 코, 입, 귀, 몸이라는 다섯 가지의 감각이 작동하는데, 이것을 성城에 비유한다면 동서남북으로 나 있는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성안에 출입하면 반드시 출입 기록을 남는데, 만약 성안에 있는데도 출입의 기록이 없다면 그것은 무기無記이고, 출입 기록이 있다면 유기有記입니다.

만약 유기有記라서 출입 기록이 확실하다면 그 사람은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출입 기록이 없다면 그는 반드시 성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기에 그 신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안에서 자체 생산되었거나 첩자란 뜻이 됩니다. 따라서 무기無記라는 것은 '말은 있지만 실제를 확인할 수 없는 개념'이나, 근거가 없음에도 '막연히 그렇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는 신념信念'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처님은 출가하여 여러 스승을 거치면서 그들 각자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명론運命論을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연론偶然論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가지론不可知論이나 회의론懷疑論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전에 의하면 그러한 주장을 크게 64가지로 분류하고 일일이 비판하셨는데, 부처님이 비판한 여러 외도의 주장을 지금 들어 보아도 나름 매우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주장이기에 끝내 증명할 수



없었고, 증명될 리도 만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주장들은 논쟁거리로 남아있으며, 지금까지도 주장들만 난무할 뿐, 증명된 적도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성선설性善說과 성악설性惡說을 들 수 있는데, 이렇게 상반된 주장은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완전하게 증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 것일까요?

성선설과 성악설을 말하기 전에 성품性品이 정말로 존재하는가를 살펴보았어야 합니다. 성선설이나 성악설은 기본적으로 '성품이 있다.'라는 전제조건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은 눈, 귀, 코, 입, 몸 등의 감각을 통해서 직접 인지된 적이 없기에 증명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전제로 깔고 그것이 선한지 악한지를 논하는 것은 '눈앞에 있지도 않은 가상의 여인'을 내세우고서 그 여인이 예쁘다거나 못생겼다고 떠드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어리석음의 결정체라고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수하게 고민하셨고, 그 결과 찾아낸 묘안妙案이 바로 감각기관感覺器官의 출입 기록이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불교 경전은 의학 서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 코, 입, 귀, 혀, 몸이라는 말이 언제나 등장합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이런 감각기관을 빼놓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설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대상을 내가 보거나 느꼈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보거나 느꼈다면 그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적어도 사실에 근거한 것이니 사유思惟의 대상으로 삼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각기관을 통과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증명할 길이 없기에, 그것을 사유의 대상으로 삼아서 논리를 전개한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반

드시 거짓이 되어서 그 자체가 모순矛盾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출입 기록이 있는 유기有記로만 사유하여 결론 내린 부처님의 말씀은 언제나 증명되는 진리이고, 출입 기록이 없는 무기無記를 사유의 대상에 끼워 넣어 논리를 전개한 외도의 말은 언제나 주장主張이 되고 맙니다.

최근 향봉 스님이 '윤회輪廻는 없다.'라고 주장해서 한참 불교계가 시끄럽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윤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처님은 윤회를 과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부처님의 대답은 무기無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기無記를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경전에서 '대답하지 않은 것'은 '묵연默然'이라고 표현합니다. 무기無記와 묵연默然은 엄연히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무기無記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윤회輪廻라는 것이 우리의 감각기관感覺器官을 통해서 들어온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무기인 윤회를 기초로 논리를 전개하면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윤회하는가 하지 않는가로 그 의견이 갈리면서 논쟁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증명되지 않는 논리를 주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윤회輪廻는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윤회한다는 증거들이 난무亂舞하고, 윤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윤회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난무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증명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유하면 결론이 나지도 않고 진리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문제로 왈가왈부曰可曰否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 그는 어떤 주장에 부화뇌동附和雷同했을 뿐 진리에 조금도 접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유명한 전유경箭喩經에서는 만동자(卍童子: Malunkyaputta)가 이런 종류의 질문을 부처님께 했을 때 무기無記를 말씀하시면서 '독화살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독화살을 맞은 사람은 독毒의 종류가 '동물의 독'인지 '식물의 독'인지를 아는 것보다 '독이 묻은 화살'을 빼는 게 더 급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물의 독'이나 '식물의 독'이 바로 '윤회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윤회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생각은 끝내 증명되지 않는 윤회를 사실로 받아들여서 서로 반대의 주장을 늘어놓는 독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알아듣지 못하기에 독화살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만동자와 같이 증명되지 않는 개념들을 사실인 양 믿으면서 나의 주장이 맞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불교를 공부하면서 어떤 증명되지 않고 증명할 수도 없는 주장主張에 끌려다니는 어리석음은 저지르지 말아야 진정한 불자라 할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으나 이 관문을 지나가야만 진리에 성큼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리석은 중생의 생각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기에 진리를 깨달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탈解脫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불자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란 뜻이니, 불자라면 언제나 무기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보는 습관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행복 수신지역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오늘은 쟁반형 안테나를 폐기하자니 아까워서
재활용하기로 하고 표면에 글자를 적어 가로등에 걸었다.
'행복 수신지역'
전파를 수신하던 것에 착안하여 행복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 지역이라 이름한 것이다.
아마 그 안테나를 눈여겨보지 않으면 당연히 그 회사의 안테나일 걸로 인식할 것이다.
그러나 천천히 걷는 이의 눈에는 그 글귀가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



행복은 주파수를 맞추고 수신해야 가능한 영역이다.
왜냐하면 어디서 빌려오거나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복은 삶의 여정에서
느끼며 즐겨야 하는 부분이다. 똑같은 일이라도
누구는 행복을 느끼지만,
누구는 불편할 수도 있음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관심을 주어야 행복은
수신할 수 있다.
행복에 대한 잠언들이 수없이 많다.
그것을 종합해보면 행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결론이다.
내게 구비되어 있는 행복의 조건들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의미인데 밖에서 찾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내 안의 행복을 모르면 밖에서 아무리 구해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행복 충전과 행복 수신은 내가 직접
주파수를 조절해야 하는 법이다.
이미 있는 것에 만족하면 행복한 사람이지만
없는 것에 목말라 하면 그는 불행한 사람.
그래서 여기의 공간을 '행복 수신지역'이라
이름한 것이다.
'응달에 사는 토끼는 겨울에 굶지 않지만, 양지에 사
는 토끼는 겨울은 굶고 산다'는
말이 있다. 양지에 사는데 왜 굶주릴까?
응달의 토끼는 이른 봄 양지에서 새순이 돋아나면
그것을 먹으러 간단다. 그러나 양지의 토끼는
응달의 언덕만 바라보고 있으므로 자기 땅의
새순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자기 조건과 자기 행복을 들여다볼 줄
모르는 셈이다.

우리도 남의 행복이 더 크게 보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없는 나만의 행복 조건이
하나쯤은 있다. 여기 절에 노老 불자님 두 분이
나오시는데, 한 분은 다리가 불편하고
한 분은 속이 불편하다.
말씀하실 때마다 각자의 조건만 부러워하는 것이
역력하다. 나도 저렇게 잘 걸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잘 먹었으면 좋겠다…
상대방의 장점을 서로 원하는 것이다.
내가 지닌 장점에 감사할 줄 모르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
그러나 내가 지닌 그 하나를 상대방은
부러워한다는 걸 인식하고 매사에 감사해야
불만이 없다. 고질적인 허리 병으로 고생하는
도반 동은스님에게 음식 투정하지 않는 식성을
칭찬하며 "스님은 뭐든 잘 먹으니 그건 다행"이라
했더니 "잘 못 먹어도 되니까
스님처럼 허리 튼튼했으면 좋겠다" 하여
서로 웃었다.
이같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부러워하고
그것을 가졌을 때 우리는 행복이 채워진다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 어쩌면 내가 가진 지금의
조건이 가장 완벽한 행복의 요소일지도 모르겠다.
넘치는 것보다 조금 부족한 게 좋다.
다 채우려 하니까 늘 부족하다.
사람이 틈이 있어야 인간적이듯 너무 완벽하면
재미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조금 모자란 게
행복의 가치도 상승한다는 통계를 보았다.
부족한 사람에겐 천 원도 고맙지만 그렇지 않으면
만 원을 주어도 고마워하지 않을 것이다.

동서고금의 행복 법칙을 종합해보면 다음 세 가지다.
하나, 불행의 요소를 없앤다.
둘, 행복의 요소를 키워가고 확장한다.
셋, 행복도 불행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는 말 있듯이,
행복을 말하면 행복이 가까이 올지도 모른다.
그 행복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가능하다.
행복의 작품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므로,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내 행복을 저당잡지 말고
하고픈 일은 미루지 말고 실행하자.
이즘에서 막연하게 참고 견딘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싫고 불편한 것부터
정리하는 수행이 필요하다.
베스트셀러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의
작가 스펜스 존슨의 '행복'에 보면,
'필요한 것은 하고, 원하는 것은 하지 마라'는
말이 나온다. 즉, 필요로 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분명 다르다는 것이다.
필요하다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원하는 것은 욕심의 산물이다.
법정스님의 무소유가 바로 이런 논리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와 불필요의 기준이다.
살까 말까 하는 것은 사지 마라.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는 말이 있다.
살까 말까 망설이는 것은 이미 있다는 의미이기에
꼭 필요한 물건은 아니란 것이다.
물건을 사 놓고 긴요하게 사용하지 않고
재여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와 달리, 갈까 말까 하는 곳은 당장 떠나라.
왜냐하면 그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닌 까닭이다.
여행은 시도해보아야 후회 없다.

집 안에 있는 달콤한 복숭아는 모른 체하고
쓴 돌배 따러 온 산천을 헤매고 있구나.

퇴계 선생이 근본 공부를 소홀히 하는 손자에게
했던 말이다. 행복을 곁에 두고 싶다면,
자신 주변에 있는 행복의 요소를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다. 어느 절에 갔더니 참나리처럼 생긴 꽃이
눈에 들어 이름을 물었더니 범부채.
집에 돌아와 정원을 산책하는데 그 꽃이
내 눈에 보였다. 우리 정원에도 있었는데
남의 정원에만 관심 있으니 그 꽃을 무심히
본 것이다. 나이 먹을수록 행복의 조건들은
내 가까이 있다는 걸 자주 실감한다.



부처님의 법이 머무는 절
법주사

큰 도움을 주고,
즐거울 때에나
괴로울 때에나 변하지 않으며,
좋은말을 해주고
동정심이 많은 친구가 되라
–법구경–

2024. 9 법주사 행사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음 7.29	2 30	3 8.1 초하루 신중기도입재 합창단법회 보현회 법회	4 2	5 3 신중기도회향	6 4	7 5 월산대종사 다례 광명진언기도
8 6	9 7 다도반법회	10 8 약사재일	11 9	12 10	13 11	14 12
15 13	16 14	17 추석 15 보름 추석합동차례	18 16 미륵재일	19 17 금오대종사 다례	20 18 지장재일 지장회법회	21 19 다라니독송기도 법주회 법회
22 추분 20	23 21 다도반법회	24 22 성보박물관개관	25 23	26 24 관음재일	27 25	28 26
29 27	30 28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 대전지역 – 선샤인호텔 앞 오전 8시 10분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법주사 소식


7월 28일 백중 4재


8월 4일 백중 5재


8월 10일 칠석기도회향


8월 11일 백중 6재


8월 18일 백중회향

미륵재일 기도

미래세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중생을 다 건지시고 용화정토를 이루실 미륵부처님께
법주사에서는 매월 음력 16일 미륵재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미륵부처님의 가피 받으시어
불자님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기도일정 2024년 **9**월 **18**일 〔매월(음) **16~18**일〕
동참보시 한가정 **2**만원

초하루 신중기도

매월 초하루 3일간 올리는 신중기도는 매월초 불보살님과 호법 선신들게
예불공양을 올림으로써 한 달을 잘 열어가기 위한 신심의 발로입니다.
화엄성중님께 예를 다하여 정성껏 기도해 보세요.
그 가피공덕이 세세생생 전해 질 것입니다.

기도일정 2024년 **9**월 **3~5**일 〔매월(음) **1~3**일〕
동참보시 한가정 **2**만원

광명진언기도

광명진언은 '광명'이라는 단어의 뜻 그대로 깊은 죄업과 어둠에 있을지라도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광명의 힘으로 밝은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진언입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인연 지으시어 공덕이 나날이 수승해지며
늘 성취하시는 일상을 이어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기도일정 2024년 **9**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2시까지)
동참보시 한가정 **2**만원

지장재일 기도

'모든 중생을 구제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기리는 날입니다.
기도나 공양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삶을 돌아보고 부처님의 제자로
정진하겠다고 발원을 세우고 점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원력을 세우고 발심을 할 때 비로소 그 원은 성취될 수 있습니다.
지장재일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시는 공덕을 지으셨으면 합니다.

기도일정 2024년 **9**월 **20**일 금요일 〔매월(음) **18**일〕
동참보시 한가정 **2**만원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미묘하고 거룩한 큰 말씀이란 뜻의 신묘장구대다라니는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아픔을 자비의 눈으로 보살피고 구원의 손길을 펼쳐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비의 주문으로 병고를 겪거나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는 중생들을 치유하는데
영험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인연 지으시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의 건강과 평안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일정 2024년 **9**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2시까지)
동참보시 한가정 **2**만원

생일불공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더없이 기쁜 날, 신도님과 신도님 가족분들의 생신을 맞아
부처님전에 정성으로 앞날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축원공덕 지으세요!

동참보시 **2**만원 (생신일로부터 3일간 기도축원 올려드립니다)

법주사 기도동참 계좌안내

농협 403020-51-010482(예금주 : 법주사)



※ 신도님들께서 정성으로 올리시는 공양미는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전달되어 소중한 한 끼의 공양으로 올려집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인과因果를 항상 명심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잊지 않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결실을 위해선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하듯이
행복과 평안을 얻기 위해선 선업善業을 꾸준히 닦아 나가야 합니다.
항상 신도님의 삶에 부처님이 함께 하시도록 법주사 모든 대중들은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신도님들 부지런히 정진하시어 부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추석합동차례 안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속리산 법주사에서는
명절날 가정에서 차례를 모시기 어려우시거나 부처님 도량에서
차례를 모셔드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추석합동차례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명절날 선망조상님들과 인연 있는 영가님을 위해 정성으로 차례를 모시고
그분들의 은덕을 기리며 불보살님의 가피로 극락왕생의 길을 내는 공덕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차례일정 2024년 **9**월 **17**일 화요일(추석날) 대웅전 오전 **10**시

동참보시 한가족 **10**만원

